

진학교사들과 함께하는 2014 대입 성공 프로젝트

12 정시전형 전망과 대책



전남대, 변환표준점수... 조선대, 백분위점수 반영

입시 2라운드, 가채점 분석부터 정확하게 지원대학 영역별 반영비율 꼼꼼히 따져야

■ 2013학년도 수능 전남대 대학별 표준점수의 유·불리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2과목	계 (800점)	전남대점수 (500점)
인문계	122	130	120	63X2	498	450.9
	125	122	125	63X2	498	452.0
자연계	125	123	123	63.5X2	498	454.1
	126	122	126	63X2	498	454.9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자의 1% 만점 목표의 '쉬운 수능'의 출제 원칙을 폐기하고 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2~3 문항의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 최상위권 학생의 변별력은 커진 반면, 나머지 문항은 EBS와 연계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중·상위권층의 점수대가 조밀해져 치열한 입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고2 학생들은 2015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 각 단원별 핵심원리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를 EBS와 연계된 문제와 함께 풀어 보면서 각 단원을 정리하고, 여러 형태의 고난도 문제를 병행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입시 결과 분석=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은 자연계는 의·치과 전문대학원 관련학과(생명과학부·화학부·화학생물과학부 등)의 커트라인이 하락했고, 약학전문대학원 관련학과(화학부)는 강세를 유지했다. 한의예과와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문계는 여전히 경영학과 행정학과와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채점 분석에서 주의할 점=가채점에서 가장 오관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은 탐구영역이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에 따라 난이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쉬운 과목은 원점수는 높게 나오지만 다른 과목의 같은 점수대에 비해 표준점수나 백분위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 점을 주의해서 판단해야 하고 필요하면 진학교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올해 대학 입시 전망=상위권 학생의 변수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서울대의 변화다. 지난해에 비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없어지고 수능이 중요해진 상태다. 탐구과목의 반영 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어 작년 대비 2~3점의 상승요인이 생겼다. 둘째,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의 '치대 모집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중상위권 학생들이 재수나 반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학생의 수시·정시 지원 경향이 올해



조선대학교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초청해 대대적인 캠퍼스 투어를 실시 중이다. 11일 오전 캠퍼스 투어에 참여한 경신여고 학생 등 참가 고3들이 대학 해오름관에서 홍보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선대 제공>

입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수능에서 고득점 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전형을 선호한다. 점수에 자신이 있는데다 수시마냥 준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고득점에 실패한 중상위권은 대거 수시 지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시 지원 전략=올해 정시 전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시요강과 지난 3년간의 입시 결과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시 지원에서 살펴야 할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지원 대학의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따져야 한다. 자신의 내신 점수를 수능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하는데서

정시 지원 전략은 시작된다. 이는 내신의 반영비율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광주교대와 전남대(L)군의 경우 내신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해마다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전남대(가)군은 내신 반영 비율이 없다.

둘째, 탐구영역의 반영방법과 반영 비율이다. 상위권 대학은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점수를 쓰고, 중상위권 대학은 백분위 점수를 쓰며, 하위권 대학은 한 과목만 반영하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본인에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영역별 반영 비율에 의한 대학별 환산 점수의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각 대학별로 반영 영역과 비율이 다르고 복잡해 신중하게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려대의 경우 인문계 우선선발에서는 국어·영어·수학만 반영하고, 성균관대 자연계의 우선선발은 수학·과학만 반영한다. 전남대는 변환 표준점수를, 광주교대와 조선대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며, 목포대·순천대는 일부 영역만 사용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지 않으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남대의 특징은 쉬운 과목을 잘 본 학생이 유리하다. 반대로 어렵게 출제된 과목을 잘 본 수험생은 불리한 구도다. 문·이과 모두 같은 점수대에 수학을 잘 본 학생은 불리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복잡한 대입 정시전형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시민기자 송정민·김호교 교사>

전남대-KOTRA, 해외인턴십 파견협정 체결

전남대학교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전남대생 해외인턴십 파견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전남대에서 진행된 협정식에는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 정병석 원장과 김태기 경영대학장, 호남권 KOTRA 지원단 김민환 단장이 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수출시장 개척과 외국기업 유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OTRA의 해외무역관은 82개국 120개, 전남대는 올 겨울방학에

학생 12명을 스위스, 체코, 캐나다, 독일, 인도 등 11개국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KOTRA 해외무역관에 매 학기 학생들을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년 전부터 경영대학이 일부 KOTRA 해외무역관에 해외인턴십 파견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인턴십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유아사랑학술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유아교육과는 최근 이틀에 걸쳐 제14회 유아사랑학술제를 대학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유아교육학술제는 유아교육과의 2013년도 학과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재학생들에게 유아교육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유아사랑학술제에는 1, 2, 3학년 120여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로 화과 동아리인 다섯손가락, 울, 굿네이버스 수업시연 동아리들의 공연과 3학년 학생 전원이 참여해 제작한 교재교구 전시회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또한 유아교육학술제에는 현재 광주여대 유아교육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광주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등 총 10개 유아교육기관의 400여명의 유아들이 초청돼 무료공연을 감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서 '언어치료 공동학술대회' 성황

'제3회 언어치료 공동학술대회'가 최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한국언어치료학회·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호남대 언어치료학과(학과장 유재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그리고 언어치료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령기 의사소통장애 아동 언

어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학술대회에는 총 11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기조강연에서는 '유창성장애', '언어장애', '조음장애' 학령기 아동의 언어치료 방법을 성찰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각 7개 분과(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청각장애, 기타언어장애) 별로 열린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숨겨진 글로벌 창의인재를 찾습니다"

조선대-호남권KOTRA지원단, 28일 IT인재 채용상담회

"일본 IT기업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호남권KOTRA지원단과 함께 일본기업 IT인재 채용상담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해오름관 2층 중형강의실에서 개최한다. 25일 부산의국어대, 27일 전북대에 이어 열리는 일본기업 IT인재 채용상담회에서는 일본의 유명 IT

기업 1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일본 IT기업에 관한 설명 및 안내에 이어 오후에는 개인별 면접이 진행된다. 채용상담회에 참가하는 일본 IT

기업은 KICO SYSTEMS, KISS-CO, GIB, 코스모 컨설팅, AIS, TPS, TOMATO, 코스모브릿지, CGS, NIP 등이며 모집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자 JAVA 프로그래머, 웹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마케팅, 영업기획, 경리, 엔지니어 등 다양하다. 이번 채용상담회에는 일본어 전공자나 IT관련 전공자, 또는 일본어 및 정보처리 자격증 소지자는 참가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본 IT기업에 취업 및 관심이 있는 조선대 졸업자 및 재학생은 물론 다른 대학 학생이나 교육이수자도 참가가 가능하다. 상담은 월드잡(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상담 참가 신청은 13일까지며, 문의는 취업지원팀(062-230-7572)으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천경매투자

1. 경매 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는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

3. 돈 빌려 주실 분

- 제1순위로 설정
- 낙찰가의 80% 정도
- 년 15% 이상 이자 지급

2. 공동 투자 하실 분

- 5천만원 이상 투자
- 등기로 법적 보장
- 매매 할때까지 함께 함

4. 입찰 대리 하실 분

- 원하는 경매물건
- 최저가로 낙찰
- 최소 비용으로 처리

(주)오천경매 직통 : 010-3605-5000 T : 525-5000

오피스텔 "급매"

1. 수기동 제일 OP, 29평
2. 20층 중 10층, 전망좋은, 내부 우수리
3. 현, 사무실 사용중
4. 용자 3500만원 정도 가능
5. 주차편리, 사무실겸 주거가능
6. 시세/감정가 - 1억1천만원 정도
7. 매매가 - 6,5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010-4667-9300